

책갈피에서 펼쳐지는 숲 속의 일들

사월의 봄에 읽을 만한 숲 이야기 책

한 산림학자 부부는 봄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유난히 연한 연둣빛 새순이 일찍 나는 것은 참나무류이기 쉽고, 새순에 벌써 단풍이 든 것처럼 붉은 색인 것은 서어나무다. 숲 사이사이로 부드러운 연분홍빛 꽃을 피워 숲을 화사하게 만드는 나무는 개살구이며,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있으면서 가장 늦게 진초록 목은 잎새 위로 연초록의 새순을 내는 것은 잣나무다.” 《숲으로 가는 길》 서민환·이유미 지음, 현암사) 꽃과 나무와 숲이 아니라면 봄은 없을 게다. 봄을 보고 싶다면 사월의 숲으로 갈 일이다.



산책길이 있는 스트로브잣나무 숲. 《숲으로 가는 길》중에서.



숲으로 갈 때, 들고 갈 길잡이 책은 최근에 많이 나왔다. 봄을 알리는 전령 꽃에 대한 고급의 문헌과 국내외 자료를 총망라한 이상희의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넥서스)가 눈에 띈다. 전3권의 방대한 분량에 우리 꽃 문화의 역사와 문화적 궤적을 담아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생활관을 밝혔다. 식물학적인 꽃이 아니라 문화적인 꽃의 내력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이 가장 방대하다. 중앙 M&B에서 펴낸 ‘자연 속의 사람 시리즈’ 중 《들꽃》(이남숙) 역시 들꽃의 생태를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엮은 책이다. 이 책 역시 생물학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사람과 어울린 들꽃의 역사를 담는 데 주력했다.

꽃점에서 나무의 신화까지

꽃말로 꽃을 찾는 책도 적잖다. 다키 야쓰카쓰의 《탄생화의 비밀》(이규조 옮김, 일빛)은 1년 365일의 탄생을 신고 그 꽃에 얽힌 전설·신화·생태 등을 정리한 책이다. 특이하게도 꽃점도 실었는데, 예를 들어 4월 12일의 탄생화는 복숭아꽃으로 “성격 좋고 표정 풍부한 당신은 주위 사람의 인기를 모읍니다”라는 꽃점을 달아 놓았다. 송종호가 엮은 《28가지 꽃말이야기》(민지사)와 김재황의 《들꽃과 시인》(서민사) 역시 꽃말을 통해 꽃을 배우는 책이다. 특히 《들꽃과 시인》은 25종의 들꽃의 생태와 송수권·김남주 등 25명 시인의 삶과 그들의 시를 연결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반옥의 《민들레는 미혼모 메밀꽃은 바람둥이》(다움)는 식물은 거꾸로 선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꽃이라는 생식기를 통해 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룬 책이라 흥미롭다. 또 송언의 《아빠, 꽃밭 만들러 가요》(사계절)는 아빠와 함께 꽃씨를 심고 가꾸는 새봄이와 우람이의 이야기를 통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책이다. 벌에 쏘인 뒤, 투우장에서 싸우기 커닝 꽃냄새만 맡으러 다니는 소 페르디난드의 유쾌한 이야기 《꽃을 좋아하는 소 페르디난드》(먼로 리프 지음, 정상숙 옮김, 비룡소)도 읽어볼 만하다.

나무에 관한 책으로는 비매품이지만, 전남대 김월주 교수의 《재미있는 40가지 과일나무 이야기》(경기도 농업기술원)가 흥미롭다. 이 책은 심은 지 6~8년이 되면 나무도 사춘기를 앓고 물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람이 충치를 앓으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배수가 안되면 뿌리가 썩어 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얘기를 통해 알기 쉽게 나무의 생태를 설명한다.

최낙성의 《은행나무 이야기》(세손)는 어릴 적부터 은행나무에 큰 관심을 가졌던 글쓴이가 쓴 은행나무 백과사전이다. 아이들에게는 앤드류 체어맨의 《나무에는 왜 잎이 있을까요?》(함께니누는엄마모임 옮김, 다섯수레)를 권할 만하다. 식물의 잎·뿌리·줄기·꽃이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쉽게 풀어썼다. 나무의 문명사적 의미를 알고 싶다면 자크 브로스의 《나무의 신화》(이학사)가 좋다. 이 책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물푸레나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참나무 등

꽃·나무·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다. 수 억년 전부터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온 식물들의 지혜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각 문명권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우주목’을 중심으로 나무와 기독교간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가 엮은 《나무이야기》(김성재 외 옮김, 일지사)는 인도네시아의 반안나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진귀한 나무와 숲을 소개해 나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넓힌다.

식물이 들려주는 지혜

단지 나무들이 모이면 숲이 되지만, 그 숲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는 탁광일이 엮은 《숲과 자연교육》(수문출판사)을 보면 알 수 있다. 생명현상을 보고도 무감해지기 쉬운 현대인은 누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생태맹’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생태맹을 극복하고 숲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다룬다. 임경빈 등의 《숲속의 문화 문화 속의 숲》(열화당)은 안병

욱·서정범·김영무·정민 등 각계 전문가들이 숲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문학·윤리·생태학 등 분야별로 다룬 책이다. 또 아이가 숲을 무서워한다면 마리홀 에츠의 동화 《숲 속에서》(박철주 옮김, 시공사)를 읽혀주자. 한 소년이 숲 속에서 혼자 산책하다가 사자, 아기·코끼리·곰·캥거루 가족 등을 만나면서 겪는 얘기를 담았다.

허신행의 《식물을 보고 세상을 읽는다》(범우사)는 이렇게 접하게 된 식물의 더 깊은 얘기를 재미있게 엮었다. 식물은 사람보다 더 발전된 생물일지 모른다는 관점에서 식물의 생태를 다뤘다. 파괴를 치유하기 위해 파동을 내보내는 나무들, 레밍을 집단자살로 내몰아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사초풀, 동물을 사냥하는 병자초 등 신기한 나무의 생존 원리를 통해 식물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들 책은 자연보호니 환경보호니 하는 목청 큰 구호 대신에 지금 숲 속으로 가 거기 어떤 나무가,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보라고 나지막히 말한다. 수억년 전부터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온 식물들의 지혜와 함께 할 때, 보다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 김연수 기자